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본격화

새만금청, 전문 연구기관 선정 입찰공고... 22억 투입 심층 전략 수립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 입찰공고(기술분야)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만금의 새로운 개발전략과 잠재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공급시설계획 등 각종 계획을 심층 검토하고, 재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은 22억원이다.

가격입찰은 4월 2일까지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RQ심사와 적격성심사를 거쳐 과업수행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4월말께 계약과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 키워

드를 '기업'으로 정하고,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허브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 대폭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 유연성 확보 등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과제를 검토하고, 수질개선 대책과 농생명용지 활용계획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협의 과정을 거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으로 인한 민간투자 급증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새만금 발전전략을 담는다.

기술적인 기초조사와 전반적인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공급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다.

입찰자격은 과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업법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되고, 건설·환경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해야 한다.

연구기관 선정방식은 RQ심사와 적

격심사로 진행되며, RQ심사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과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참여 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등)과 지역기업 참여율을 평가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거듭나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빅픽처(큰그림)를 수립할 예정"이라며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새만금청은 앞서 학술분야(8억원)에 대해 2월29일까지 공고를 마감하고 제안서평가와 협상 등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새만금 홍보 웹페이지 오픈

새만금개발공사, 분양시점 이전 선제적 디지털 홍보 마련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홍보전문 웹페이지(land.sae.or.kr)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홍보전문 웹페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속한 디지털 전환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첫 분양 시점 이전에 선제적인 디지털 홍보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심투자자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되었다.

주요 서비스는 △수변도시 기본정보, △지구구획계획지침 등 분양관련 상세 콘텐츠 △홍보 브로슈어 등 사업설명자료, △분양데려 등 수요자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분양 일정 및 계획 관련 고객 상담도 증가하고 있어, 분양레터 서비스를 도입해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주묻는질문(FQA) 내 최근 급증하는 문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백재현 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웹페이지 오픈으로 최근 계획(안)을 변경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추진상황과 향후 분양계획 등 상세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관심고객, 잠재투자자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최태일 전주삼천신협 이사장 '신협 전북협의회장' 선출

신협 전북지역협의회장에 최태일(58) 전주삼천신협 이사장이 선출됐다.

신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전북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태일



전주삼천신협 이사장을 신협 전북지역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최 선임 회장은 2019년 전주삼천신협 조합원의 지지를 받고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취임 당시 약 1400억원이던 자산을 4년만에 2배인 2800억원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평소 임직원 간의 화합을 중요시함으로써 조합 의사 결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전북지역 6개 평의회 중 하나인 완산평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한국전주교 사무원연합회 전국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행복, 씩씩, 자긍심, 혁신을 통해 희망찬신협을 그린다"며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전북신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지역협의회 제도는 신협중앙회와 개별 신협(조합)을 잇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조합의 발전과 협력 지원, 소속된 지역본부(신협중앙회)에 자문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농진청, '과수·시설채소 생육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지역별 과수·채소 생육 점검 등 현장 대응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2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과수·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과수·채소 생육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재호 청장은 과수 개화기에 주로 발생하는 저온 피해에 대비하는 지역별 사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나타나는 채소 생육 저하와 병해충 방제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까지의 기상 상황과 앞으로 기상 전망을 기반으로 과수, 시설채소 등 주요 농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돕고 품질 저하를 예방하는 관리 요령, 기술지도, 방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과수 저온 피해 대응 현장 기술지원단'과 '시설채소 생육 관리 현장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과수 저온 피해 대응 현장 기술지원단은 사과·배·포도·복숭아·감 5대 과수 주산지와 지역별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저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벌이고 있다.

시설채소 생육 관리 현장 기술지원단은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애호박 등 품목별 주요 출하지에 과경매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생리장해나 병해충 진단 또는 방제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시스템' 안내 서비스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기상



농촌진흥청은 12일 본청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과수·채소 생육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저온 예보 등) 정보와 품목별 관리요령을 제공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모든 기관이 협력해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최소화, 시설채소 생육 저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등에 온 힘을 쏟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농작물 냉해피해 현장방문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2일 완주군 화산면 농가를 찾아 냉해 피해 현황을 살피고 농업인을 위로하며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전북지역은 지난해 겨울 대비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양파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험사고 접수건은 281ha며 이중 완주군 화산면은 80ha에 달하는 가운데 행정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피해 농가를 방문한 김영일 본부장과 전북농협 직원들은 농업인들의 고충을 전달받고, 피해상황 점검하고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조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 지역에 발생한 냉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 역시 확인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전북농협은 농업인의 심려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



전북농협은 12일 완주군 화산면 농가를 찾아 냉해 피해 현황을 살피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부채농가 회생 18억원 예산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에 빠진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올해 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어려운 경영위기의 농가가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농지는 논, 밭, 과수원 및 농업용시설(농지에 있는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이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다.

농지 매도 이후에도 해당 농업인에게 최장 10년간 관행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의 임대료로 임대를 제공하고, 임대기간 내 환매권을 보장하여 기간 내 신청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는 올해부터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어 분할납부도 기간이 연장되어 허용된다. 계약금 30% 납부 후 잔금 70%에 대해서는 10년간 10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기간 중 환매대금을 수시로 납부하여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는 수시납부 제도를 통해 환매가 더욱 쉬워졌다.

사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 지사를 방문하거나 063-350-7084번으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장수=고관호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